

조정과 화합의 경세가 방촌 황희

우리 역사에서 황희처럼 풍성한 이야기를 지닌 인물을 만나기도 어렵다. 게다가 황희 이야기는 따뜻하고 정감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만나는 황희는 국왕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강직한 관료의 모습이다.

황희는 1363년에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태어났으며 27세가 되던 해에 문과에 급제해 적성현 훈도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황희, 태종의 신임을 받다

황희는 40대에 태종의 측근 박석명의 추천으로 그의 뒤를 이어 지신사(도승지)가 됐다. 태종은 황희를 항상 자신의 곁에 두고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했다. 실록은 두 사람의 각별한 사이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황희, 세종의 날개가 되다

세종은 대간들의 거센 요청을 물리치고 태종의 말을 따라 황희를 의정부 참찬이라는 요직에 복직시켰다. 이때 황희의 나이 60세였다.

이듬해 7월, 강원도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세종은 황희를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했다. 이때 황희는 목민관으로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했다. 마음을 다해 신속하게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해내자 세종은 깊이 감동했다.

1431년, 세종은 69세의 황희를 영의정에 임명했다. 이후 황희는 18년 동안 세종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국정을 운영했다.

황희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지휘해 문물의 진흥을 이뤘다. 농사법을 개량해 소출을 늘렸으며 각 도에 뽕나무를 많이 심도록 해 백성들의 의생활을 풍족하게 했다.

황희를 평가함에 가장 주목할 것은 약자를 돌보는 일에 늘 앞장섰다는 사실이다. 여종이나 종의 아들같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도 “하늘의 아들”(天民)이라며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1 황희 정승 영당 2 황희 정승 묘

어진 재상 황희

황희는 조정자의 역할을 특히 잘 해냈다. 황희가 아흔에 죽자 사관들이 이렇게 그의 생애를 평가했다. “조정과 민간에서 놀라 탄식해 조문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하급 관리와 종들까지 모두 전을 베풀어 제사를 지냈다” 황희는 천성이 너그럽고 신중하며 재상으로서의 식견과 도량을 지니고 있었다. 타고난 풍채도 우뚝 크고 총명하기 그지 없었다.

집안을 다스림에도 매우 검소했으며, 화난 표정을 짓는 법이 없었다. 재상이 된 지 24년 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우러러 바라보면서 모두 말하기를 “어진 재상”이라고 했다. 세종을 도와 조선을 문화 강국으로 끌어올린 경세가로서 황희를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파주 임진강 기슭에 황희가 ‘갈매기와 벗하며’ 말년을 보낸 반구정이 있다. 그런데 반구정 주변에 초소가 서 있고 강기슭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다. 분단을 극복할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반구정 아래 서 있는 황희 선생의 동상 측면에 초서로 새겨 놓은 ‘관풍루(觀風樓)라는 시에 눈길이 간다. 원칙에 충실하되 조정과 화합에 힘써 위대한 시대를 열었던 황희의 탁 트인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